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과 한농연 도회장단 간담회 개최



▲ '한농연-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 (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강승일 전무, 박용성 회장, 민석 이사, 김종택 실장)

지난 5월 27일 한농연 회관 강당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과 한농연 도회장단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성 회장을 비롯하여 강승일 전무, 민석 이사 등 상공회의소 관계자 5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지난 3월 18일 한·일 FTA비즈니스포럼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FTA논의에서 농업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농민과 정부, 기업이 만나 상생의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한 '농업문제 공론화' 주장이 '농업을 무

작정 개방하자'는 뜻으로 잘못 전달됐다고 말하고, 경위야 어찌됐든 자신의 발언취지가 잘못 전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4백만 농민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칠레FTA와 관련하여 농업인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포함합니다

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성 회장이 지난 3월 18일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FTA논의에서 농업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농민과 정부, 기업이 만나 상생의 방안을 찾아보자"고 "농업문제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농업을 무작정 개방하자'는 뜻으로 잘못 전달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경위야 어찌 됐든 박용성 회장의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4백만 농업인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박용성 회장이 지난 5월 27일 한농연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며, 농업문제에 대한 상공업계와 농업계의 상호 이해증진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농연 각도 회장단의 항의성 발언이 이어졌으며, 박용수 한농연 회장은 "지난 40~50년간 우리경제는 농업의 일방적 희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농업기반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상공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하고 "농업문제 해결에 상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사태로 인해 농업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대한상공회의소 측에서도 농업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2002년 5월 29일

대한 상 공 회 의 소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농연에 전달한 광고게재 문안(한국농어민신문 6월 3일 1면 게재)

이에 대하여 자리에 참석한 한농연 각도 회장단은 이번 사태로 인한 두산제품 불매운동 등 농업현장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달하고 “지난 수십년 간 우리경제는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농업 기반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상공업이 발전할 수 없으며, 농업문제해결에 상공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FTA추진과 WTO협상 등에서 농민을 대표하는 한농연과 상공업을 대표하는 대한상의가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으며, 5월말까지 사과와 뜻을 언론에 게재하라는 한농연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농어민신문에 이번 사태로 4백만 농어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데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농업발전을 위해 자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회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켜보고 난 뒤 중앙이사회에서 불매운동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홍수 중앙회장 「KBS 일요진단」 방송 출현

한농연 박홍수 중앙회장은 5월 12일 KBS 1TV의 일요진단에서 구제역과 농업정책에 관한 토론자로 출현했다. 이날 토론에는 박홍수회장을 비롯해 김동태 농림부장관과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박홍수회장은 구제역과 관련해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과 농가 피해대책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김동태 장관에게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피해농가이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비롯한 정부의 소득보전정책과 쌀종합대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WTO협상에 대한 대책과 함께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농연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및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읍·면 단위 좌담회 실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5월 6일 충남 태안군 안면농협 회의실에서 3차 이사회를 갖고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에서 자발적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읍·면 단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농연은 2001년 농가부채특별법이 제정돼 일시적으로 상황이 유예되었으나 2003년까지 3조 6113억원만 지원대상금액에 포함, 농민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5월말까지 읍·면회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부

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읍·면단위 협동조합간담회를 통해 ▲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 및 주요 동향 논의, ▲ 지역 협동조합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 한농연 회원들이 숙지 및 구체적 요구사항 도출, ▲ 예결산 총회 참여운동을 비롯한 회원조합 참여 방안 등 논의하여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농경연 이정환 신임원장 한농연회관 방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신임원장으로 취임한 이정환(전 농경연 부원장)원장은 취임 다음날인 5월 21일에 한농연회관을 인사차 방문했으며, 한농연 박홍수 중앙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박홍수 중앙회장은 “그 동안 농경연은 잘못된 정부 농정시책의 옹호와 시장개방 당위론의 유포에 앞장서 농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고 지적하고, 농민중심적·현장지향적 연구자세로 위기에 빠진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농경연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전북도연합회, 농정공약 요구안 마련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는 지난 5월21일 오후2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한농연 전북도연합회, 전농전북도연맹, 농촌지도자 전북도연합회, 전북 4-H연맹)를 비롯한 한여농 전북도연합회, 전북여성농민연합회 등 전북지역 농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북농업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6.13 전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농정공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농정요구안의 내용은 전북 농업정책의 방향속에 ▲ WTO 농산물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적극대비 ▲ 농가부채 후속대책 마련 ▲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 전북농업발전을 위한 지역농정체계 수립 ▲ 농업정책 보좌관 배치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분야별 농업정책에는 ▲ 농정심의회 운영의 내실화 ▲ 전북 쌀산업 발전 대책 강화 ▲ 농업재해 대책기금 신설 ▲ 자체 농업기금 증액과 신설, 투자 확대 ▲ 무분별한 농지전용의 차단 및 관리철저 ▲ 친

환경농업 적극 추진과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전북 농축산물 유통시스템 개혁 ▲ 농어촌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책 수립 ▲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 농업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체계의 구축 ▲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촌총각 결혼대책 마련 ▲ 농업정보화를 위한 대책과 농업관련 연구비 지원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마련한 농정요구안은 최소한의 자치단체 차원의 공약 요구안으로, 향후 도지사 후보들에게 농민단체의 농정요구안을 공약으로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였다.

전북도연합회, 민주당 농어민특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는 지난 5월 21일 전북지역 농민단체(전농 전북도연맹, 농촌지도자 전북도연합회, 전북4-H연맹, 한여농 전북도연합회, 전여농)와 공동으로 새천년민주당 농어민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전북농업인회관 3층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참석자 명단〉

■ 새천년민주당

- 농어민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용호
- 농어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손정호(서울), 임수진(진안), 김철규(군산), 황대영(성남), 조경구(광명)
- 중앙당 농림수석전문위원 : 김영욱
- 특위국 수석전문위원 : 조인식, 부장 : 김수형

■ 전북도청 : 안세경 농림수산국장

■ 농민단체

-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 김대욱 도회장, 임선타 수석부회장, 김재영 정책부회장
- 송영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 전농 전북도연맹 : 김용호 의장, 조경호 사무처장, 황만길 정책실장
- 농촌지도자회 : 홍봉길 회장, 강관형 사무국장
- 4-H연맹 : 소병기 회장, 김배옥 부회장, 양규철 부회장
- 한여농 : 심점순 회장, 배연옥 부회장
- 전여농 : 김성숙 부회장, 임덕규 사무국장

이번 간담회에서 전북도연합회는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할 것과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 할 것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강원도연합회, 지방선거 출마자 순회 간담회 진행

한농연 강원도연합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5박 6일간 도내 한농연 출신의 모든 출자마들과 순회 간담

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연합회 전 임원진이 참여했다. 강원도연합회는 임원진을 4개조로 나누고 1조는 대외협력부회장, 감사 2인과 함께 춘천, 철원, 홍천, 화천지역을 돌며, 2조는 정책부회장, 사업부회장으로 고성, 양양, 인제, 양구를, 3조는 수석부회장과 감사 일인으로 영월, 정선, 원주, 횡성을, 4조는 도회장, 처장, 농어민신문 강원 주재기자로 삼척, 평창, 속초, 태백, 동해, 강릉 등지를 돌며 출마자들을 격려했다.

강원도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를 위해 전체 출마자들에게 당선기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증정했다.

부여군연합회 조세구 회장 별세

한농연 부여군연합회 조세구 회장이 지난 5월 5일 서울 아산중앙병원에서 지병인 위암으로 향년 47세로 별세하였다.

2000년도 12월에 부여군연합회 회장에 추대된 고 조세구 회장은 위암의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도 투철한 농민운동 정신으로 1년 4개월여간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농업경영인대회와 지난 쌀값보장을 위한 투쟁을 비롯한 각종 농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열의를 보였다. 특히 '쌀값보장 및 쌀 산업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단식 투쟁은 물론 우리 쌀 애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끝까지 농업경영인의 긍지와 의지를 실천하였기에 보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부여군연합회는 공식인 부여군연합회 회장직에 현 김창진 부회장을 회장권한대행으로 추대하였다.

〈조세구 회장 약력〉

- 부여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부여군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
- 임천초등학교 총회협의회 육성회장
- 임천중학교 학부모회 부위원장
- 총화농협 감사
- 부여군 체육회 이사
- 한농연 부여군 총화면회장
- 한농연 부여군연합회장

조세구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WTO 범국민연대 미국 농업법 개정 규탄 및 대응활동 전개

WTO국민연대는 미국의회가 농업보조금을 70% 이상 인상하는 법률안을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은 농업보조금 70% 인상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WTO 국민연대는 5월 6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농업보조금 인상 등으로 자국농업을 보호하면서 WTO 농업협상에서 각국의 농업시장

개방 및 보조금 삭감을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의 농업보조금 인상을 WTO에 제소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5월 7일과 8일에는 Thomas C. Hubbard 주한미대사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미국의 농업보조금 인상에 대한 항의서한” 과 “미국의 농업법 제정에 대응한 국내농업대책 수립 건의문” 각각을 전달하였다. WTO 국민연대는 항의서한에서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신농업법 입법과 관련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마저 거부할 경우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세계 NGO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건의문에서는 WTO 협상결과 따라 국내농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고 WTO 협상에 대비하여 각종 직접지불제 확대와 농업보조금 증액 등으로 농가소득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 교육발전위원회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교원징계심의위원회 대강당에서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이번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재 농어촌교육은 농촌인구감소 → 학생수 감소 → 소규모학교 통·폐합 → 학업성취도 저하 → 농촌학교 불신 → 도시유학 → 향도이농 → 농촌인구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농연중앙연합회 탁명구 정책실장은 “왜곡된 현 입시위주의 교육여건 속에서 낙후된 농촌교육은 농촌을 공동화시키고,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주범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농촌교육의 난맥상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기존 예산외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 역시 이를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 광고〉

전농 정광훈 전 의장 배형택 대외협력국장 보석 석방

2001년 농민대회와 관련하여 구속되었던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광훈 전 의장과 배형택 대외협력국장이 지난 5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한농연**

한농연중앙연합회 재판 일정

- 2001년 한·칠레 FTA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표자 대회 관련 이재덕 사무총장 6차 재판 (7월 2일 서울지방법원 421호)
- 2000년 11월 21일 농촌희생 촉구를 총궐기대회 관련 박홍수 중앙회장 재판 (6월 25일 서울지방법원 424호)